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3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꿀벌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안 내	주 일	토요일 19:00 06:30 (새벽) 09:30(중고등부)		
		10:30 (교중) 10:30 (초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21:00 (밤)		
예비자교리 유아 세례 혼인 강좌	평일	새벽 6:30 / 저녁 7시 (목)오전 10시		
		일요일 낮 12시 / 화요일 저녁 8시		
		3월 6월 9월 12월 네 번째 토요일 오후 4시		
		매월 세 번째(토) 오후 2시~7시(6월 휴강)		
		<< 매 미사 전후 고해성사 >>		

새 사제 첫 미사

5월 7일(오늘) 교중미사 10시 30분

홍훈표 이시도로 임치성 안드레아
황현철 비오 강인석 F.하비에르

- 오늘 교중미사 후 지하강당에서 신자들을 위한 새 사제 강복과 국수잔치(식당)가 있습니다.

알림

- 봉성체 : 5/10(수) 오전 9시부터 합니다.
- 본당에서 갖는 모든 단체모임은 사무실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실 휴무 : 5/9(화) 임시공휴일로 휴무합니다.

祝 세례식 및 피정

피 정	5/7(오늘)	10:30 미사 후 ~ 16:30
세례식	5/14(일)	10:30 교중 미사 중

모임

모임	일시	장소
· 사목위원회	5/12(금) 저녁 8시	지하강당
· 예수성심회 월례 모임	5/12(금) 오후 3시	베타니아
· 꾸리아 월례모임 1Q	5/14(일) 오후 2시	지하강당
2Q	5/14(일) 오후 2시	소성전
3Q	5/14(일) 저녁 8시	소성전
4Q	5/14(일) 저녁 8시	지하강당
· 만나회 월례회의	5/15(월) 오전 10시	제 6교실
· 제대회 월례모임	5/16(화) 오전 11시	1교리실
· 임원모임 (반구역장, 형제회장, 사목위원)	5/17(수) 저녁 8시	지하식당

청소년 분과

- 유·초등부 유아반 교리 안내
 - 일시 / 장소 : 6/4(일) 주일미사 후 부터 / 교육관
 - 대상 : 4,5세 어린이
 - 등록기간 : 5/7(일)~5/28(주) 주일미사 전·후
 - 교육교재비 : 5,000원 (본당지원 60,000원)
 - 문의 : 문현순 루치아 (010-8897-8814)

초등부 기쁨잔치

주제	“주님 찾GO !! 기쁨 찾GO !!”
일시/장소	5/14(일) 어린이 미사 후 / 운동장
내용	놀이마당, 체험마당, 음식마당
문의	유·초등부 지도수녀 010-3235-8544 초등부 분과장 010-5250-1399

* 물품(문구류, 생활용품 등) 잔조를 받습니다.(분과장 접수)

※ 5/13(토)오후1시부터 5/14(일)까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청년성가대 반주자 모집(주일 저녁 7시 미사)
 - 연습시간 : 매 주일 오후 4시부터
 - 문의 : 유미선 데레사 (010-8645-8309)
 - 청년 성가대와 함께 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5월 성모성월 묵주기도 안내

- 묵주기도 : 매일미사 30분전 시작
- 9월 기도 : 5/15(월)~5/23(화)
- 성모의 밤 행사 : 5/27(토) 저녁 7시

교육 / 강좌

- 16지구 구역장 · 반장 월례연수
 - 일시 : 5/16(화) 오전 10시 30분 시작
 - 장소 : 신도림동 성당

자녀들을 위한 기도모임

- 일시 : 5/12(금) / 저녁 8시
- 장소 : 쉼터방
- ※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기도모임입니다.

* 놀이 및 운동기구 수집합니다. *

- 이동 오라토리오에서 지역 청소년들과 사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운동기구를 기부 받습니다.
- 종류 : 인라인스케이트, 스카이크롱, 야구용품, 공 종류, 보드게임, 바둑, 체스 등등
- 기다리는 곳 : 살레시오수녀회 이동오라토리오 팀
- 문의 : 김은경 세실리아 수녀 010-7722-8957
- ※본당 사무실에서도 기부 받습니다.

구역미사 및 형제회 모임

일정	구역미사		형제회
5/10	3구역	10구역	13구역
5/17	임원모임(반장, 구역장, 형제회장, 사목위원)		
5/24	15구역	21구역	8구역

다음 주일(5/14) 국수잔치 / 청소

국수잔치	없음(기쁨잔치)	청소	18구역
------	----------	----	------

※ 청소 담당 구역에서는 빠짐없이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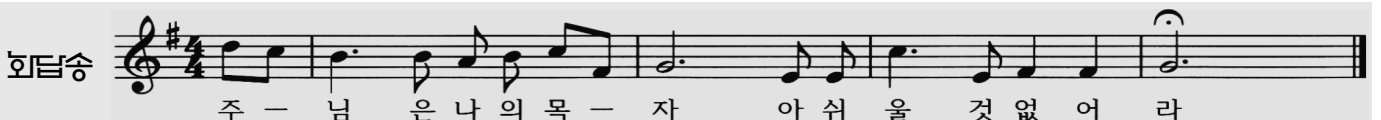
성체 분배자 명단

날짜	특전	06:30	10시 30분	12시	저녁7시
5/7	박승환	이계면	손상민 이운영 최상남	최석준	최승일
5/14	최창열	황태영	김봉기 김광수 김영배	김인기	박용환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날짜	해설	복사	독서
5/7	이은희	오성한 신종구 최상림 김현철	안상록 백희자
5/14	이인옥	임공섭 조호환 도현문 심재순	최승일 손정주

- 주보 7면 - 국제 미사 안내 - 본당 가정간호 사업 안내
-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 국제 미사 안내 ***

- 일 시 : 주일 오후 4시 / 교육관(소성전)
- 장 소 : 교육관(소성전)
- 대 상 : 중국동포,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 스리랑카 등 다국적 이주민
- ▶ 주변에 계시는 외국인 신앙인을 본당으로 안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전례와 성가, 해설 등 미사 봉사자와 안내 및 뒷정리에 도움을 주실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2-6738-2200(박경석 보스코 수사님)

◎ 본당 가정간호사업 안내

대 상	* 신자, 비신자 누구나 이용 가능
	* 만성질환자 중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암환자 및 특수 간호가 필요한 분
	* 장기요양등급 받으신 분
문 의	가정간호사 (010-8229-5785)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행동하는 교리

46. 교회는 모든 기술 발전에 함께해야 하나요?

(계속)

기쁨과 희망 모든 인간의 평등과 사회적 정의

모든 사람이 이성적 영혼을 갖추고 하느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 같은 본성과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또 그리스도께 구원을 받고 동일한 신적 소명과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모든 사람의 근본적 평등은 더욱더 인정을 받아야 한다.

분명히 육체적 능력이 다르고 지성적 도덕적 역량이 다르므로 모든 사람이 동등하지는 않다. 그러나 인간 기본권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 사회적이든 문화적이든, 또는 성별, 인종, 피부색, 사회적 신분, 언어, 종교에서 기인하는 차별은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 그러한 인간 기본권이 아직도 어디에서나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이를테면 자유로이 배우자를 선택하고 생활 신분을 받아들일 권리, 또는 남성이 받을 수 있는 것과 동등한 교육과 문화의 기회가 여성에게 거부되는 경우가 그렇다.

더욱이 인간들 사이에 정당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평등한 인간 존엄성은 더욱 인간답게 공평한 생활 조건에 이르게 되기를 요구한다. 하나인 인간 가족의 구성원들이나 민족들 사이의 지나친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은 추문을 일으키고, 사회 정의, 평등, 인간 존엄성은 물론 사회적 국제적 평화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립이든 공립이든 모든 인간 단체는 인간의 존엄과 목적에 봉사하며 온갖 사회적 정치적 예측을 거슬러 줄기차게 투쟁하고 모든 정치 체제 아래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수호하도록 진력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단체들은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때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모든 것 가운데에서 가장 드높은 정신적 실재에 점차 부응해 나가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1965년) 29항

백주년 사회적 갈등의 원인들

교회는 사회적 복음 메시지를 어떤 기술이나 단순한 이론처럼 보지 않고 사실은 무엇보다도 먼저 행동하는 기반과 기회로 생각한다. 이 메시지에 감화되어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 어떤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그들이 다양한 사회 계층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로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복음의 힘으로 여러 세기 동안 수도자들은 땅을 경작했으며, 수사들과 수녀들이 가난한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병원, 보호 시설 그리고 자선 협회를 세웠으며, 여러 계층의 남녀들은, “너희는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마태 23,40)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경건한 원의로 남아 있으면 안 되고 오히려 구체적 생활의 실천이 되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궁핍하고 주변화 된 이들을 위한 봉사에 투신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회칙 <백주년>(1991년) 57항